

## 唐代 樂舞詩의 인문학 텍스트로의 활용 가능성 모색\*

고진아\*\*

### 目 录

1. 들어가며
2. 唐代樂舞詩의 내용 특징
  - 1) 藝人의 技藝 중시
  - 2) 휴머니즘적 시선 표현
  - 3) 강화·효과 극대화
3. 唐代樂舞詩의 표현 특징
  - 1) 직접적인 스케치
  - 2) 비교법의 운용
  - 3) 연상과 상상을 이용한 烘托
4. 인문학 텍스트로의 활용성
5. 나가며

### 1. 들어가며

唐代 樂舞詩는 唐代의 시인들이 唐代의 전례 없는 樂舞흥성이라는 특수한 문화적 현상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詩라는 장르적 특성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본래 中國 古典詩는 서구의 詩에 비해 시인이 직접 목도하고 겪은 사실을 敘事하는 기능이 더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중 특히 唐代 樂舞詩는 문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58344)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외교통상학부 강사

화 혼종시대를 살았던 唐代 詩人들의 자기성찰에 대한 기록이자 문화 성찰에 대한 기록이다. 宮中에서 權貴 富豪의 집에 이르기까지 연회가 열리면 반드시 크고 작은 樂舞 공연이 열렸던 시대적 현상은 唐代 시인들이 마주한 일상이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시인은 세계를 이해하는 자신만의 시선으로 독특한 樂舞詩의 예술 세계를 형성했다.

사실 현재까지 樂舞詩의 연구는 樂舞를 전래함에 있어 다른 기술이 없었던 唐代에 상세하게 춤사위의 동작을 재현한 樂舞詩의 史料 기능적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sup>1)</sup> 그러나 唐代 시인들이 樂舞의 춤동작을 후대에 도식화하여 전달하기 위해 樂舞詩를 창작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唐代 樂舞詩는 賞用 기능만을 詩속에서 부각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樂舞가 지니는 ‘移人’ ‘驚天’ ‘泣鬼’의 感化<sup>2)</sup>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當時 최고의 유행 매체였던 樂舞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抒情까지 담아내고자 했다. 樂舞를 통해 시인은 자신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을 해석하려고 했으며, 눈 앞에 펼쳐지는 藝人들의 樂舞 공연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통합적으로 살피고자 노력했다. 특히 唐代 樂舞詩에서는 舞蹈와 藝人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裡面 모습에 주의를 기울인 모습이 보인다. 이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舞蹈를 표현하는 藝人을 단순한 즐거움의 도구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서 이해하려고 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唐代 樂舞詩의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 1) 김미영 「唐詩에서의 춤동작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Ⅰ」 서울 무용역사기록학 2012.  
김미영 「唐詩에서의 춤동작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Ⅱ」 서울 무용역사기록학 2014 : 남종진 「唐代詩歌에 나타난 柘枝舞」 외국학연구 28집, 2014.
- 2) 淸人 方扶南이 白居易 『琵琶行』, 韓愈 『聽穎師彈琴』, 李賀 『李凭箏篋引』의 작품들에 대해 "한유는 하늘을 놀라게 할만하고, 이하는 귀신을 울게 할만하고, 백거이는 사람을 변화 시킬만 하다(韓足以驚天, 李足以泣鬼, 白足以移人)."라고 평가한 것에서 유래되어 移人, 驚天, 泣鬼, 은 시가 가질 수 있는 감화 효과를 형상화하는 언어가 되었다.

## 2. 唐代樂舞詩의 내용 특징

『全唐詩』에는 唐代 樂舞에 관련된 시가 1,667수가 수록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작자는 437명에 이른다.<sup>3)</sup> 이 가운데는 시인이 직접 樂舞공연을 감상하고 지은 詩도 있고, 樂舞와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 詩를 지은 것도 있으며 다수의 樂舞詩를 창작한 작자도 있고 樂舞詩를 한편 정도만 남긴 작자도 있다. 여하한 樂舞와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 詩를 지은 것은 모두 樂舞詩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보다 전문적으로 樂舞詩의 樣態를 파악하기 위해 中國舞蹈藝術研究院에서 『全唐詩』에서 실린 樂舞詩 가운데 樂舞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詩 383首를 모아서 『全唐詩中的樂舞資料』를 편찬했다.<sup>4)</sup> 이에 『全唐詩中的樂舞資料』에 실린 樂舞詩와 『全唐詩』에 실린 餘他 樂舞詩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唐代 樂舞詩의 내용적 특징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藝人的 技藝 중시

唐 이전의 樂舞詩는 藝人을 묘사할지라도 容顏·服飾·표정을 중심 소재로 삼았다. 傅毅의 「舞賦」를 보면 舞人的 등장·음악 연주·무녀의 춤사위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중 舞人的 가볍고 우아한 자태와 요염함에 대한 표현<sup>5)</sup>이 두드러진다. 이와 유사한 唐代 樂舞詩 白居易의 「胡旋女」를 살펴보면 舞態에 대한 묘사를 더욱 선명하고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3) 『全唐詩』臺北：宏業書局，1982.

4) 중국무도예술 연구원 『全唐詩中的樂舞詩資料』臺灣 人民음악출판사, 1987.

5) 巨才編 『辭賦一百篇』山西人民出版社，1994年，第44页

…于是郑女出进，二八徐侍。姣服极丽，媵媵致态。貌嫵妙以妖蛊兮，红颜晬其扬华。眉连娟以增绕兮，目流睇而横波。珠翠的砾而照耀兮，华袿飞髻而杂纤罗。顾形影，自整装。顺微风，挥若芳。动朱唇，纤清阳。亢音高歌，为乐之方。…

오랑캐 춤추며 빙글빙글 도는 여자는  
 마음대로 손 놀리고 능란하게 북을 치네  
 음악 소리 맞추어 두 소매 펼쳐 들고  
 휘날리는 눈에 다복쭉 구르듯 춤추네  
 좌로 돌고 우로 구르고 지칠 줄 모르며  
 천 번 돌고 만 번 굴러도 끝날 줄도 모르네  
 세상의 어느 신묘한 것들과도 비길 수 없으니  
 달리는 바퀴나 회오리바람보다 날쌔도다.  
 춤이 끝나 천자에게 재배하고 물러나니  
 천자도 흡족하여 입을 열고 미소 짓네.<sup>6)</sup>

白居易는 위 시에서 ‘좌로 돌고 우로 구르고 지칠 줄 모르며 천 번 돌고 만 번 굴러도 끝날 줄도 모르네.’라며 舞人의 춤사위를 세밀하고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또 岑參 역시 「田使君美人如蓮花舞北筵歌」에서 樂舞를 하나의 장면으로 압축 묘사한 후 樂舞의 感化 효과에 대한 표현을 통해 춤의 기예가 고도의 기술임을 부각시켰다.

이 곡은 호인들이 중원에 전한 것인데  
 관객 모두가 놀라고 감탄하는구나.  
 요염한 무녀의 몸매는 균형이 잘 잡혀있고  
 가벼운 비단 천에 금사로 수 놓인 꽃들은 생동감 있게 피어나는 듯 하다.  
 옷자락을 휘감고 소매를 돌리니 구름이 날아오를 것 같은데  
 좌우로 어찌나 빠른지 회오리바람 같구나.  
 비파와 횡저의 반주가 아직 한 곡을 다 끝내지 못했는데  
 화문산 꼭대기에 황색 구름이 모여들고,  
 돌연 「출새」와 「입새」 두 곡의 연주 소리가 들려오자  
 단숨에 마른 풀 위로 누런 모래바람이 쑈아 쑈아 불어오는 것 같구나.  
 데굴데굴 구르며 춤을 추고 전체 악기가 합주하자 신들린 듯  
 앞으로 돌고 뒤로 돌 때마다 새롭구나.<sup>7)</sup>

6) 『全唐詩』卷426 胡旋女, 胡旋女. 心應手, 手應鼓. 絃鼓一聲雙袖舉, 迴雪飄飄轉蓬舞.  
 左旋右轉不知疲, 千匝萬周無已時. 人間物類無可比, 奔車輪緩旋風遲. 曲終再拜謝天子,  
 天子爲之微啓齒.

위 시에서 고도의 技藝에 관한 묘사가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舞人의 외양적인 아름다움의 묘사는 상대적으로 간략하다. 시인은 舞人의 춤동작이 얼마나 빠르던지 회오리바람과 같고, 돌기를 얼마나 잘하던지 돌 때마다 달라 보인다 표현했다. 특히 「출새」와 「입새」 두 곡이 연주되자 갑자기 연회장이 마른 풀 위로 누런 모래바람 휘몰아치는 변방으로 변해버렸다.’고 묘사하는 등 樂舞에 관한 표현이 세밀하고 생동적이다.

唐代 樂舞詩를 보면 이외에도 다양한 舞態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위한 고민한 흔적들이 다량 발견된다. 이는 舞態를 표현하는 樂舞詩 속 다양한 詩語들 妙舞<sup>8)</sup>, 緩舞<sup>9)</sup>, 醉舞<sup>10)</sup>, 亂舞<sup>11)</sup>, 狂舞<sup>12)</sup> 등에서 잘 드러난다. 이렇듯 唐代 시인들은 樂舞를 단순히 娛樂의 도구로 봤던 前代의 인식에서 벗어나 樂舞를 하나의 예술 매체로 인식했고, 시인은 시를 통해 정감을 전달하듯 舞人들은 舞蹈라는 독특한 표현 수단인 율동으로 자신의 情感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樂舞를 단순한 娛樂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審美대상으로 인식한 것이다.

- 7) 高光復 『高适岑参诗译释』 黑龙江人民出版社, 1984. 270-274  
 此曲胡人传入汉, 诸客见之惊且叹。慢脸娇娥纤復穠, 轻罗金缕花葱茏。  
 …回裾转袖若飞雪, 左颯右颯生旋风。琵琶横笛和未匝, 花门山头黄雲合。  
 忽作出塞入塞声, 百草胡沙寒飒飒。翻身入破如有神, 前见后见回回新…
- 8) 『全唐詩』卷51 宋之问 「有所思」  
 此翁白头真可怜, 伊昔红颜美少年。公子王孙芳树下, 清歌妙舞落花前
- 9) 『全唐詩』卷143 王昌齡 「重別李評事」  
 吳姬緩舞留君醉, 隨意青楓白露寒。
- 10) 『全唐詩』卷 166 李白 「鬪歌行」  
 吾兄行樂窮曛旭, 滿堂有美顏如玉。趙女長歌入彩雲,  
 燕姬醉舞嬌紅燭。狐裘獸炭酌流霞, 壯士悲吟甯見嗟
- 11) 『全唐詩』卷 419 元稹 「和李校書新題樂府十二首：胡旋女」  
 蓬斷霜根羊角疾, 竿戴朱盤火輪炫。驪珠迸珥逐飛星,  
 虹暈輕巾掣流電。潛鯨暗吸筴波海, 回風亂舞當空霰。
- 12) 『全唐詩』卷 445 白居易 「和微之詩二十三首：和寄樂天」  
 坐耀黃金帶, 酌醅纈玉質。酣歌口不停, 狂舞衣相拂。

## 2) 휴머니즘적 시선 표출

唐代 樂舞詩는 歌舞에 대한 역동적이고 세밀한 묘사를 통해 藝人의 기예를 찬양하면서 화려한 樂舞공연 후면에 감춰진 樂工과 舞人의 근심과 고통에 주의를 기울였다. 樂工과 舞人은 기본적으로 色과 藝를 겸비했다는 이유로 고향과 가족을 떠나 唐 皇宮 혹은 權貴의 집에 팔려 왔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깊었다. 특히 唐代에 技藝 鍛鍊에 대한 승상이 강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인 수련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더구나 아무리 젊어서 총애를 받았던 藝人일지라도 나이가 들어 色과 藝가 衰退하거나, 의지하던 주인을 잃게 되면 하루아침에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됐기에 이들의 삶은 고달프고 외로웠다.

예를 들면 李建勛의 「宮詞」와 王建的 「舊宮人」<sup>13)</sup>에는 주인의 총애를 잃은 슬픔이 표현되어 있고, 李賀 「龍夜吟」<sup>14)</sup>에는 邊方 家妓의 望鄉과 비참한 운명이 그려져 있다. 또 王建的 「溫泉宮行」과 劉禹錫의 「秦郎歌」에는 주인 死後 流浪하며 악기를 안고 종일 우는 모습 등이 처절하게 표현되어 있다. 특히 白居易의 「琵琶行」에는 늙고 쇠퇴한 藝人의 獨守空船의 고통이 다음과 같이 처절하게 묘사되어 있다.

스스로 말하기를 저는 본래 장안에 살았는데  
 집은 하마릉 아래 있었지요.  
 열 셋에 비파 타기 모두 배우고  
 이름이 교방 제일부에 속해 있었는데  
 곡을 끝내면 늘 스승이 감복하였고  
 화장하면 미인들이 질투를 받았지요.  
 오릉의 젊은이들 다투어 머리에 비단을 감아주었고  
 한 곡조에 받은 비단 셀 수 없을 만큼이었지요.

13) 『全唐詩』卷301 先帝旧宮宮女在，亂絲猶挂鳳凰釵。霓裳法曲渾拋却，獨自花間掃玉階。

14) 『全唐詩』卷394 捲髮胡兒眼睛綠，高樓夜靜吹橫竹。一聲似向天上來，月下美人望鄉哭。  
 直排七點星藏指，暗合清風調宮徵。蜀道秋深雲滿林，湘江半夜龍驚起。玉堂美人邊塞情，  
 碧窗皓月愁中聽。寒砧能搗百尺練，粉淚凝珠滴紅線。胡兒莫作隴頭吟，隔窗暗結愁人心。

자개 박은 은비녀는 장단 맞추다 깨뜨리고  
 붉은 비단 치마 술을 엮길러 더럽혔지요.  
 웃고 즐기며 한 해 한 해 보내느라  
 세월 가는 줄을 모르고 지냈는데  
 동생은 군대 가고 양어머니마저 죽고  
 어느덧 나이 들어 얼굴빛이 변하니  
 문 앞은 쓸쓸하고 찾는 손님도 드물어  
 늙어서 어쩔 수 없이 상인의 아내 되었는데  
 상인은 이익보다 이별을 가벼이 여겨  
 지난달 부랑으로 차를 사러 떠났지요.  
 강어귀에 왔다 갔다 빈 배만 지키자니  
 배 비추는 밝은 달에 강물만 차가워서  
 밤이 깊어 문득 꿈을 꾸니 어린 시절인지라  
 꿈에서도 울어 화장 눈물 얼굴을 적신다고 하네.<sup>15)</sup>

이처럼 唐代 樂舞詩에는 藝人의 불행과 근심을 들여다보고 이를 함께 가슴 아파하는 詩人의 同情이 드러나 있다. 藝人의 樂舞에는 藝人의 情感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이는 표현됨과 동시에 觀覽者의 情感을 자극한다. 唐 이전의 樂舞詩는 舞女의 생김새·복식·음악에 관해 주의를 기울였을 뿐 才藝에 대한 칭찬은 없었으며 그냥 이를 즐기는 태도만 있었다. 樂舞 표현자와의 情感의 나눔이나 共鳴은 시도되기 어려웠고 藝人의 고달픈 삶과 그들의 불행을 이해하려는 휴머니즘적인 시선은 없었다. 그러나 唐 樂舞詩는 그렇지 않았다.

황금칼로 얇은 비단 잘라  
 황금색 실로 만든 그릇에 담네  
 조비연처럼 꾸미고서,  
 손바닥 춤을 가르치는구나.

15) 『全唐詩』 卷435-14

自言本是京城女，家在蝦蟆陵下住。十三學得琵琶成，名屬教坊第一部。曲罷曾教善才服，粧成每被秋娘妬。五陵年少爭纏頭，一曲紅綃不知數。鈿頭銀篋擊節碎，血色羅裙灑酒污。今年歡笑復明年，秋月春風等閑度。弟走從軍阿嬈死，暮去朝來顏色故。門前冷落車馬稀，老大嫁作商人婦。商人重利輕別離，前月浮梁買茶去。去來江口守空船，繞船月明江水寒。夜深忽夢少年事，夢啼粧淚紅欄干。

춤이 끝나자 비연처럼 죽어서,  
조각조각 바람따라 흘러갔네.<sup>16)</sup>

聶夷中の「大垂手」에는 풍요를 자랑하는 唐朝에서 손바닥에서 춤 출 정도로 가벼운 체형을 갖기 위해 밥을 굶고 고된 훈련을 하여 결국 趙飛燕에 견줄 만한 舞藝를 갖추게 된 巫女의 높은 기예에 대한 讚辭와 同情이 담겨있다. 시인은 여기서 舞女의 몸이 가볍고 춤의 예술적 경지가 높다는 사실을 찬미하지만 고도의 舞藝에 뒤에 숨겨져 있는 뼈아픈 고통을 수반한 단련의 시간들 까지도 살피고 이에 대한 同情의 마음도 잊지 않았다. 唐의 시인들은 눈 앞에 펼쳐지는 樂舞공연의 절대 절명한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순간에도 정교한 춤을 위한 생명의 代價를 함께 의식하고 舞人에 대한 同情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唐代의 시인들이 審美대상을 詩化 함에 있어 인간적 입장을 보다 더 깊이 살피려고 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이는 시인 자신에 대한 省察과 타인의 처지에 대한 배려를 기본으로 하는 휴머니즘적인 시선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 3) 感化효과의 극대화

樂舞는 일종의 종합예술이며 특히 舞蹈는 인체를 표현 매개로 하는 인체예술이다. 그러나 舞蹈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공간에 펼쳐지는 人體美와 복식의 아름다움·舞人의 춤사위 묘사만으로는 완벽하게 전달될 수 없다. 舞蹈는 舞人이 율동의 방법으로 그들의 인생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舞蹈의 표현 역시 삶의 진실을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樂舞詩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樂舞예술에 체현된 舞人·舞容·음악 연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사하고, 꾸밈으로써 感化 효과까지 전달하고자 했다. 唐代 시인들은

16) 『全唐詩』卷26-76

金刀翦轻云，盘用黄金缕。装束赵飞燕，教来掌上舞。舞罢飞燕死，片片随风去。

樂舞를 詩로 읊을 때 단순한 娛樂 추구 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예술적 感化로 인한 정신역량의 강화·영혼의 淨化등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이에 唐代 樂舞 詩에는 樂舞를 통해 자신의 性情을 도야하고 근심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다. 이는 孟郊의 「聽琴」· 韋庄의 「村笛」· 吳融의 「贈李長史歌」· 李頎의 「古意」· 白居易의 「琵琶行」· 「聽彈古淥水」<sup>17)</sup>· 「琴酒」· 「臥聽法曲霓裳」· 「好聽琴」 등에 드러나 있다. 또 樂舞의 感化효과 중 敎化의 기능도 중시하여 정치교화를 내용으로 한 樂舞詩도 적지 않다. 白居易의 「胡旋舞」 후반부를 보면 잘 드러난다.

천보 말년에 세상 형편이 바뀌어  
백성들은 교활함만 배웠었네.  
궁 안에는 태진이요 밖에는 안녹산이 있었으니  
두 사람이 호선무를 가장 잘 춘다고 일컬어졌네.  
이화원 궁궐 안에서는 태진을 귀비로 책봉하고  
안녹산을 금계 병풍 아래에서 길러서 양자로 삼았네.  
안녹산의 호선무는 황제의 눈을 홀려  
군사가 황하를 건너와도 반란인 줄도 몰랐네.  
양귀비의 호선무에 황제의 마음이 홀려 있어  
마외에서 죽여 내버렸음에도 생각은 더욱 깊어졌네.  
이로부터 대지의 축과 하늘을 지탱하던 받줄도 흔들려  
오십 년 동안이나 바로잡지 못하였다네.  
호선녀여 헛되이 춤만 추지 말고  
이 노래를 자주 불러 황제가 흰히 깨닫게 해주시오<sup>18)</sup>

이처럼 백거이는 「胡旋舞」에서 胡旋舞를 춤추는 여인을 노래하며 안녹산과 양귀비의 弄奸에 휘둘린 황제를 풍자했다. 唐太宗 역시 「咏風」<sup>19)</sup>에서

17) 『全唐詩』卷 428 聞君古淥水，使我心和平。欲識慢流意，為聽疏泛聲。西窗竹陰下，竟日有餘清。

18) 『全唐詩』卷426 天寶季年時欲變，臣妾人人學圓轉。中有太眞外祿山，二人最道能胡旋。梨花園中冊作妃，金雞障下養爲兒。祿山胡旋迷君眼，兵過黃河疑未反。貴妃胡旋惑君心，死棄馬嵬念更深。從茲地軸天維轉，五十年來制不禁。胡旋女莫空舞，數唱此歌悟明主。

19) 『全唐詩』卷36 逐舞飄輕袖，傳歌共繞梁。動枝生亂影，吹花送遠香。

자신의 정치 의도를 표현했고, 張濛은 「曉過南宮聞太常清樂」에서音を 살피면 정치를 알 수 있다고 했다. 李白은 「烏西曲」·「梁園吟」등에서 통치계급에 대한 풍자를 표현했고, 杜甫도 「觀公孫大郎弟子舞劍器行」<sup>20)</sup>에서歌舞를 빌어 唐 50년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流離에 대한 감개를 표현했다. 특히 白居易는 「華原磬」에서 “음악과 정치가 통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어찌 악기의 소리를 듣는 것 뿐이겠는가?”<sup>21)</sup>라고 했는데 이는 『樂記』에서 “군자가音を 들음은 그 鏗鏘(악기)의 소리를 듣는 것뿐이겠는가? 그것 또한 마음에 맞는 바가 있는 것이다.”<sup>22)</sup>라고 말한 典故를 활용한 것이다. 이는 음악과 정치의 관계를 밀접하게 본 白居易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白居易는 『諷諭樂府』에 「胡旋女」·「驃國樂」·「七德舞」·「立部伎」·「西涼使」등의 樂舞詩를 포함하여 政治 諷諭詩로 분류했다. 이는 白居易가 정치풍자의 뜻을 표현하는데 樂舞의 소재를 심분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安史의 亂을 겪은 후 中唐 樂舞詩는 더욱 樂舞와 정치의 상관관계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표현하는데 활용됐다. 이러한 경향은 李益의 「過馬嵬」·李約의 「過華清宮」·元稹의 「冬白紵」·杜牧의 「過華清宮」·白居易의 「長恨歌」등에 잘 드러나 있다.

### 3. 唐代 樂舞詩의 표현 특성

唐代 樂舞詩는 前代와 다른 시선으로 형성된 詩想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

20) 『全唐詩』卷222 昔有佳人公孫氏, 一舞劍器動四方。觀者如山色沮喪, 天地爲之久低昂。霍如羿射九日落, 矯如羣帝驂龍翔。來如雷霆收震怒, 罷如江海凝清光。絳脣珠袖兩寂寞, 晚有弟子傳芬芳。臨穎美人在白帝, 妙舞此曲神揚揚。與餘問答既有以, 感時撫事增惋傷。先帝侍女八千人。公孫劍器初第一。五十年間似反掌, 風塵瀕洞昏王室。梨園弟子散如煙, 女樂餘姿映寒日。金粟堆南木已拱, 瞿唐石城草蕭瑟。玳筵急管曲復終, 樂極哀來月東出。老夫不知其所往, 足躡荒山轉愁疾。

21) 『全唐詩』卷426 「華原磬」始知乐与时政通, 岂听鏗鏘而已矣。

22) 조남권 역주 『樂記』민속원, 2000. 君子之聽音, 非聽其鏗鏘而已也. 彼亦有所合之也.

한 표현 방법을 이용했다. 음악이나 무용은 旋律 혹은 動作으로 표현자의 정서를 전달하기에 매우 개괄적이고 모호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이를 詩언어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唐代 樂舞 詩人들은 樂舞공연의 감동적인 장면과 그에게서 받은 고도의 感化를 생생하게 형상화하기 위해 강조·암시·비유·상징·압축 등등 여러 가지 표현 기교를 활용하여 樂舞詩속 詩想을 구체화했다. 이는 주로 白描수법과 比擬 수법 그리고 烘托과 渲染에 의한 聯想과 想像을 일으키는 수법으로 표현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직접적인 스케치

舞踊은 可視的이라는 측면에서 음악보다 나아 보이기는 하지만 舞踊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 역시 매우 개괄적이기 때문에 이를 詩로 형상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중 舞姿와 舞蹈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는 먼저 윤곽만을 짚게 그린 白描수법을 주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동사와 형용사의 적절한 운용으로 시도되었다. 白描수법은 직접 스케치하여 묘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唐 樂舞詩는 소박한 문자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舞蹈와 音樂공연에서 보고 느낀 바를 묘사했다. 이는 독자들에게 직관적이고 선명한 인상을 주었다. 이때 응축되고 정제된 詩語를 활용하는데, 주로 동사와 형용사를 활용하여 춤추는 자의 동작을 형용하고자 했다. 白居易의 「胡騰兒」를 보면 때로는 역동적이고 때로는 응축적인 동사가 잘 운용되어 있다.

눈을 치켜올리고 눈동자 굴리며 꽃무늬 양탄자 이리저리 밟고 다니며  
붉은 땀방울 온몸에 흘러내리고 진주 구슬 장식 모자 삐딱한데  
술에 취한 듯 동쪽으로 까우똥 서쪽으로 가우똥  
한 쌍의 장화는 부드럽고 무희들 등불 앞에 가득하네.  
둥글게 돌며 하는 빠른 발차기는 리듬에 딱 맞고  
손을 뒤집어 깎지 끼고 춤추는데 무희의 허리는 초승달처럼 가늘구나.<sup>23)</sup>

이 시에서 白居易는 현란한 스텝을 ‘踏’을 이용해 표현하고 몸을 기울이고 넘어지는 동작은 ‘傾’과 ‘倒’라는 역동적인 동사를 활용하여 잘 표현했다. 특히 손을 거꾸로 돌려 각지를 낀 동작을 ‘叉’라는 동사를 활용하여 응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돋보인다. 唐詩에 이러한 白描수법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주로 轉(돌다),<sup>24)</sup>擧(손이나 발을 들다), 踏(스텝을 밟다), 揚(들어올리다), 叉(엇갈리게하다), 起(일으키다), 凝(모으다), 倒(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 縱送(계멋대로 날뛰다),<sup>25)</sup> 旋轉(몸을 구르며 빙글빙글 돌다)<sup>26)</sup> 등의 詩語를 통해 구현되었다.

## 2) 비교법의 운용

聽音を 소재로 한 詩想을 전개할 때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매우 어려워 생명력 있는 전달을 위해 악기 소리를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音響에 비유하기를 즐겼고 無形의 소리를 有形의 물질로 변화시켜 표현하는 방법을 애용했다. 비유는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다른 하나의 사물을 묘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사람을 사물에 비유하기도 하고 사물을 사람에 비유하기도 한다. 비유법을 잘 활용하면 좀 더 생동감 있게 묘사하여 사물에 특수한 정감을 붙어넣을 수 있다. 또 비유법은 사물을 의인화하는 방법으로 묘사하는 대상에 생동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樂舞詩에서 가장 상용된 표현수법으로 이를 통해 詩想을 암시하거나 강조·과장하고 압축하는 등 다양한 의도로 사용됐다.

23) 『全唐詩』卷284 「胡騰兒」揚眉動目踏花氍，紅汗交流珠帽偏。醉卻東傾又西倒，雙靴柔弱滿燈前。環行急蹴皆應節，反手叉腰如卻月。

24) 『全唐詩』卷59 李峴「舞」妙伎游金谷，佳人滿石城。霞衣席上轉，花岫雪前明。

25) 『全唐詩』卷444 白居易「霓裳羽衣歌」飄然轉旋回雪輕，嫣然縱送游龍驚。小垂手後柳無力，斜曳裾時雲欲生。煙蛾斂略不勝態，風袖低昂如有情。

26) 『全唐詩』卷277 盧綸「臘日觀咸甯王部曲娑勒擒豹歌」山頭曠曠日將出，山下獵圍照初日。前林有獸未識名，將軍促騎無人聲，潛形踣伏草不動，雙雕旋轉群鴉鳴。

비단 소매에 향기 일어나는데 끝없이 일어나고  
 붉은 연꽃은 가을 안개 속에서 사랑살랑 흔들리네.  
 가벼운 구름은 산봉우리 위에서 잠시 바람에 흔들리고  
 부드러운 버들가지는 연못가에서 물결을 스치네

위의 詩 楊玉環의 「贈張雲容」<sup>27)</sup>을 예로 들면 여기서 紅蕖은 연꽃을 말하는 것으로 춤추는 자가 늘씬하고 아름답게 서 있는 모습을 형용하고, 늘어진 소매에 바람이 부는 모습을 하늘하늘 가을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다고 표현했으며, 비단 소매가 움직일 때마다 향이 풍겨 나오는 모습은 사람들이 춤 공연에 심취되고 있음을 묘사한다. 이어서 바람이 가벼이 불어오자, 춤추는 자가 마치 고개 위에 걸쳐진 가벼운 구름이 일어나는 듯하고, 예쁜 초록색 버들가지가 연못가에서 하늘거리는 것 같다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當時 樂舞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 3) 연상과 상상을 이용한 烘托

樂舞詩에서는 舞姿와 舞態뿐만 아니라 樂舞 표현이 수용자인 시인에게 일으킨 感化효과를 표현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직접적인 표현법을 사용하지 않고, 간접적인 표현 방법인 烘托과 渲染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聯想과 想像 불러오게 하는 표현 방법<sup>28)</sup>으로 일종의 幻覺을 불러일으키거나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방법이다. 연상과 상상은 白描나 比喻 수법과 다른 수법인데, 舞蹈 혹은 舞人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관람자가 舞蹈를 보고 느낀 심리 반응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수법이다. 杜甫의 「觀公孫大娘弟子舞劍器行并序」에서 공손대랑이 춤추는 모습을 묘사한 부분을 보면 이러한 수법이 드러난다.

27) 『全唐詩』卷 5 羅袖動香香不已, 紅蕖裊裊秋烟里. 輕雲峴上乍搖風, 嫩柳池邊初拂水

28) 『全唐詩』卷 222 杜甫 「觀公孫大郎弟子舞劍器行」 “觀者如山色沮喪, 天地爲之久低昂”

예전에 공손대랑이라는 절세미녀가 있었는데  
 한번 검기무를 추면 사방을 진동시켰지  
 구경꾼들이 산처럼 모여서 모두 났을 잃고,  
 하늘과 땅이 오래도록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았네.  
 그녀의 광채는 후예가 아홉 태양을 떨어뜨린 듯하고,  
 날아 오를 때는 하느님이 용을 타고 쫓구치는 듯,  
 우뢰처럼 왔다가 내려갈 때는 노여움을 거두는 듯하고,  
 춤이 끝날 때는 강과 바다에 맑은 빛이 얼어버린 듯하네.<sup>29)</sup>

公孫大娘의 劍舞를 관람하는 관중들의 얼굴색이 창백해진 반응을 통해 신묘한 춤의 자태가 어느 정도인지 간접적으로 가늠하게 하였다. 특히 마치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 같았다는 부분은 검무를 보고 있노라면 환각을 일으킬 정도라는 것을 묘사함으로써 공손대랑의 춤 솜씨가 대단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바로 춤 공연을 감상하는 관중들이 舞人の 춤 솜씨로 인해 환각의 세계에 빠져든 것을 표현한 것으로 烘托 수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표현수법은 岑參의 「田使君美人舞如蓮花北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비파와 횃저의 반주가 아직 한 곡을 다 끝내지 못했는데  
 화문산 꼭대기에 황색 구름이 모여들고,  
 들연 「출새」와 「입새」 두 곡의 연주 소리가 들려오자  
 단숨에 마른 풀 위로 누런 모래바람이 췌아 췌아 불어오는 것 같구나.<sup>30)</sup>

‘琵琶’와 ‘羌笛’의 연주를 통해 우선 서역의 情調가 피어오름을 그리고, 「出塞」와 「入塞」의 연주를 통해 변방의 풍광으로 場內가 일시에 돌변되었

29) 『全唐詩』卷222 昔有佳人公孫氏，一舞劍器動四方。觀者如山色沮喪，天地為之久低昂。

霍如羿射九日落，矯如群帝驂龍翔。來如雷霆收震怒，罷如江海凝青光。

30) 高光復 같은 책 270-274쪽 琵琶橫笛和未匝，花門山頭黃雲合。忽作出塞入塞聲，白草胡沙寒颯颯。翻身入破如有神，前見後見回回新。

음을 의미한다. ‘花門山頭黃雲合’의 구절에서는 惡劣한 전쟁이 시작될 때 누런 모래바람이 일어나는 변방의 풍광을 묘사한 것이며 ‘白草胡沙寒颯颯’은 드넓은 사막의 풀이 건조하게 말라 있는데 그 위로 황량한 바람이 불어옴을 청각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사실 이 네 가지 詩句는 藝人의 음악에 도취되어 마치 변방에 온 듯한 환상을 보게 되는 관중의 상태를 그린 것이다. 이는 樂舞詩가 관람자에게 불러일으켜 준 무한 상상의 세계가 詩로 구성되었음을 보여 준다.

#### 4. 인문학 텍스트로의 활용성

唐代 樂舞詩에 그려진 장면과 감흥은 樂舞공연 전체의 모습은 아니다. 樂舞詩에 전개된 樂舞는 詩人의 詩想 주도하에 상징화되고 압축된 것이다. 본래 詩속 詩想은 선행된 일정한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전제하므로 詩의 감상은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樂舞詩를 읽는 것 역시 詩想 전개 의미를 추출하는 과정과 같다. 이는 樂舞詩속 詩想 역시 詩 형식을 통해 일정한 텍스트 안에서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詩는 개인의 경험과 감상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보편적인 가치체계 속에서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감상하는 독자의 관점에서 수용하고 재해석될 수 있는 공간 역시 제공한다. 즉 詩는 詩人과 독자 사이에 존재하며 독자는 詩人이나 그 詩 속에 등장하는 소재에 대한 비평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 詩는 함축적인 언어 밖의 의미를 담보하여 진정한 개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써 무한한 가능성 역시 지닌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바는 唐代 樂舞詩가 인문학적 텍스트로의 가치가 지니고 있느냐하는 부분이다. 唐代 樂舞詩는 다른 시기의 樂舞詩와는 달리 휴머니즘적인 시선으로 인간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樂舞공연을 매개 삼아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고민한 작품이기 때문에 인문학적 텍

스트로의 의미가 있다. 특히 樂舞詩는 이를 창작한 시인이 살았던 시대 조건과 공동체적인 상황을 복합적으로 암시하고 있고, 이 가운데 소외된 인간에 대한 따뜻한 휴머니즘적 시선과 성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텍스트적 가치가 크다. 4차 혁명시대에 현대 사회는 무엇보다도 인간성 회복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소외된 인간의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휴머니즘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唐代 樂舞詩의 인문학교육을 위한 텍스트적 활용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것이다.

## 5. 나가며

사실 樂舞를 보고 이를 詩로 표현한 경우가 唐代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詩經』·『楚辭』에서부터 梁 나라의 宮體詩에 이르기까지 樂舞를 소재로 한 詩가 적지 않았으나 唐代 樂舞詩만큼 樂舞 자체에 대해 섬세하고 역동적으로 묘사한 적은 없었다. 樂舞를 소재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樂舞를 공연하는 여인의 외양적인 아름다움이나 동작의 교태로움에 대한 묘사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唐代에 이르러 樂舞詩는 前代와는 다른 새로운 樂舞詩의 境界를 형성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드러낸다.

첫째, 藝人의 技藝를 중시하여 고도의 기예를 세밀하고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둘째, 藝人의 높은 기량 후면에 감춰진 인간적 고통에 관심을 갖고, 이를 공감하는 휴머니즘적 시선이 표현되어 있다. 셋째, 樂舞의 감화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이를 정치풍자, 교화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하고자 했다.

이처럼 唐代는 樂舞의 공연을 즐기면서 단순히 樂舞공연의 표면적인 아름다움만을 전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넓게는 樂舞흥행이 있기까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통찰했고, 좁게는 공연된 악무의 기예가 상당한 수준에 오르기까지

겪어야 했을 藝人의 고통까지 共感했다. 詩人의 눈은 렌즈가 되어 화려한 樂舞 공연 뒤에 소외된 藝人의 문제까지 초점을 맞추고 현실에서 추구해야 할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까지도 치열하게 고민했던 모습이 樂舞詩에서 읽힌다. 인문학적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인간의 삶일 것이다. 인간의 삶을 사과의 중심에 놓고 인간의 삶이 갖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인문학적 성찰의 기본이라고 볼 때 唐代 樂舞詩는 이전의 樂舞詩와 달리 휴머니즘적 특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唐代 樂舞詩는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경험을 펼쳐내는 매개적인 기능을 담당하여 樂舞詩로 하여금 인문학적 역할을 회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唐代 樂舞詩가 새로운 시선, 즉 보다 인문학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전의 樂舞詩와는 가장 차별화되는 특징이다.

### 參考文獻

- 『全唐詩』 臺北：宏業書局，1982.
- 歐陽修 『新唐書』 北京：中華書局 1988.
- 劉昫 『舊唐書』 北京：中華書局 1988.
- 郭茂倩 『樂府詩集』 北京：中華書局1979.
- 南卓 『羯鼓錄』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88.
- 중국무도예술 연구원 『全唐詩中的樂舞詩資料』 臺灣 人民음악출판사, 1987.
- 조남권 역주 『樂記』 민속원, 2000.
- 俞為民, 孫蓉蓉主編 『新編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 唐宋元編』 黃山書社, 2006.
- 陳澧編 鄭秉燮譯 『禮記集說大全』 서울 학고방 2014.
- 任半塘 『教坊記箋訂』 북경 中華書局 2012.
- 朱易安 『唐詩與音樂』 桂林 漓江出版社 1996.
- 張明非 『唐詩與舞蹈』 桂林 漓江出版社 1996.
- 彭慶生·曲令啓選注 『唐代樂舞書畫詩選』 북경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88.
- 巨才編 『辭賦一百篇』 山西人民出版社, 1994年,
- 高光復 『高适岑参诗译释』 黑龙江人民出版社, 1984,
- 김미영 「唐詩에서의 춤동작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Ⅰ」 서울 무용 역사기록학 2012.
- 김미영 「唐詩에서의 춤동작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Ⅱ」 서울 무용역사기록학 2014 :
- 남종진 「唐代詩歌에 나타난 柘枝舞」 외국학연구 28집, 2014.
- 이채문 「중국 중세 ‘서역삼대무’의 중원 유입과 전개양상」 서울 무용역사기록학, 2015
- 이혜원 「서역춤의 당대 유행원인연구」 『인문언어』 제13권2호 국제언어인문학회
- 이종숙 「고구려호선무정체연구」 서울 한국음악연구, 2006.
- 남종진 「唐代시가에 나타난 柘枝舞」 외국학연구 28집, 2014.

## Abstract

### A Study on the 'Yuewushi' of the Tang Dynasty and its application as human text

Go, Jin A

Yuewushi is expressed by utilizing the genre characteristics of the Tang Dynasty poets who experienced the special cultural the development of Music and dance. Originally, the Chinese classical poetry contains a stronger ability to narrate the facts of the poet himself. Especially Yuewushi is a record of cultural reflection and self - reflection of contemporary poets who lived in the age of culture mixed culture.

One of the cultural aspects that reveals the mixed culture of the Tang Dynasty most clearly is the development of music and dance brought forward from the West. From the royal court to the house of the Noblemen, the big and small music and dance were performed when the banquet was held. Tang poets have formed a unique artistic system of Yuewushi, with their own eyes to understand their world. While enjoying the performances of music and dance, the poet did not simply describe the superficial beauty of music and dance. First, he gained insight into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this fashion. Secondly, he had to experience music and dance to a significant level He showed sympathy to the pain of the artist. The poet 's eyes become a camera lens, which illuminates the suffering of an artist hidden behind a brilliant performance. This shows that the poet has been worried about the nature of man through the Yuewushi. The Tang Dynasty Yuewushi is characterized by a new perspective, a more humanistic point of view, than the previous one. The basic gaze of the poets of Tang dynasty was centered on human beings and tended to be interested in human inner problems. The poet was able to express a warm humanistic view of the life of the artist and to express the result of speculation and reflection from the humanistic

perspectiv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 humanistic approach will always be human life. Therefore, it seems to be enough to use it as a humanistic text. If we consider human life as the center of thought and to be interested in the problems of human life is the basis of humanistic reflection, Tang Dynasty Yuewushi has many humanistic characteristics unlike previous times.

**Key words** : Yuewushi, music, dance, humanistic, Baijuyi, Dufu, human text.

투 고 일 : 2020. 7. 10. / 심 사 일 : 2020. 7. 15. ~ 2020. 8. 15. / 게재확정일 : 2020. 8. 20.
---